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미주꽃동네판  
제73호 2025.4.20.(부활대축일)

# 꽃동네의

**KKOTTONGNAE:** "Flower Village"  
in English is community of love and  
salvation for the most needy.

*Even if you have only some  
strength to beg for food, it is a  
gift of God's grace.*

꽃동네 홈페이지 | [www.kkot.or.kr](http://www.kkot.or.kr)  
꽃동네 인터넷 방송 | [www.kkottv.com](http://www.kkottv.com)

## 최귀동 할아버지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 일제 징용에 끌려갔다 돌아왔으나, 몸은 병들어 무극천다리밑에거적을치고사는 걸인이되었다. 그후 40여년 동안 남는 밤만 얻어다가 자기보다 못한 걸인들을 보살피며 살았다.

1976년 9월 12일 오용진 신부(당시 무극천주교회 주임)는 우연한 만남을 통해 할아버지의 삶을 보고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 임을 깨달아 '의지할 곳 없고, 얻어 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분들을 위한 꽃동네를 시작하였다.

## 꽃동네 현장

우리는,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그 고귀한 은총을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와 인간의 구원이 동일한 실재로서 사랑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구현되는 특별한 은총임을 믿으며, 오늘도 '벗을 위해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몸소 살고 있음에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린다.

우리 꽃동네는,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주춧돌을 두고, 오웅진 요한 신부와 최귀동 베드로 할아버지의 만남, 특히 가톨릭 신앙에 몸을 바친 오웅진 요한 신부의 특별한 '하느님 체험' 을 머릿돌로 삼는다.

우리 꽃동네는, 가난과 고통으로 소외된 이들과 보잘것없는 이들의 보금자리로서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사랑을 체험하는 사랑의 구도자다.

우리 꽃동네는, 사랑이란 은총의 기꺼운 도구가 되기 위하여 특히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여정을 함께 사는 항구한 사랑의 동반자다.

우리 꽃동네는, 사랑의 결핍으로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을 사랑으로 맞아들어 돌봄으로써, 그들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삶을 함께 살아 하느님의 가족이 되도록 돕는 사랑의 종개자다.

우리 꽃동네는, 사랑의 결핍을 불러오는 원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이에게 참 사랑을 가르쳐주고, 배워주고, 체험시켜 주는 산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가정, 국가와 인류 사회에 참 행복을 선포하는 사랑의 교육자다.

우리 꽃동네는, 그 이념을 따라 진정한 사회복지사업을 계발하고 실천할 봉사자와 전문

인재를 키우며, 나아가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가꾸며 거두어들이는 일꾼이 되게 하는 사랑의 전문가다.

우리 꽃동네는 온 인류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 배워주고, 체험시켜주는 사랑의 선포자다,

마침내 우리는, 사랑이신 하느님께로부터 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이신 성령의 도움으로 사랑이신 하느님께 돌아감으로써 인류의 구원과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참되고 영원한 사랑의 특별한 현실" 로 남고자 한다.

2016년 12월 27일 개정



## 꽃동네 심벌

꽃동네 심벌은 창설자 오웅진 신부가 서품 30주년 이 되는 2006.5.3.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여 만들었다. 심벌의 흰색 바탕은 성부이고, 가운데 큰 별은 성자, 빛은 성령을 의미 한다. 큰 별에서 생긴 4개의 작은 별은 꽃동네의 인적구조인 꽃동네회원, 예수의 꽃동네형제회, 예수의 꽃동네자매회, 예수의 꽃동네재속회를 의미 하며, 동시에 사도직인 복지(종합사회복지시설), 행복(사랑의연수원), 교육(꽃동네대학교 · 꽃동네 학교), 사랑(사랑의영성원)을 의미한다.





# 변함없는 삶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 찬미 예수 「아멘」 사랑합니다.  
하느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꽃동네회원님께도 그리고 모든 은인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사랑의 마음 담아 이 편지를 드립니다.

1953년 5월 가난을 체험한 어린시절, 나의 한 생애는 오로지 하나 길가에서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한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찾아 때로는 정치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웅변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청소년 적십자 연맹에 가입하여 봉사를 했습니다.

1962년 8월 15일 8.15광복 기념식이 대전시 공설운동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6.25 때에 고아들 3천명을 살리신 대전 대흥동 성당 오기선 신부님의 공로에 “국민훈장” 을 수여하는 것을 보고 나의 마음이 완전히 변해서 정치가가 되어 대한민국의 거지를 없애겠다는 꿈을 내려놓고 천주교 신부가 되어 한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대한민국의 걸인을 없애겠다는 일

념으로 신학교에 입학했고 1976년 5월 3일 청주 교구 내덕동 성당에서 정진석 주교님의 주례로 사제서품을 받고, 1976년 8월 20일 음성군 금왕읍 무극천주교회 주임신부로 부임해서 1976년 9월 12일 최귀동(베드로) 할아버지를 만나 “언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 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저의 전 재산 1300원으로 시멘트 1포를 사서 블록을 찍어 18명의 걸인을 위한 방 다섯 칸을 지어 1976년 11월 15일 준공하여 18명을 입주시킨 것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의 삶은 하나,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도 내일도 똑같습니다. 하느님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마음에 드는 일, 곧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저의 삶은 하느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느님과 함께 일을 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꽃동네 가족들을 위하여, 길가에서 죽어가는 가장 가엾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분들을 위하여 봉사해주는 고마운 분들, 그리고 꽃동네의 살림을 위하여 꽃동네 회비를 내어 주시는 고맙고, 고마운 꽃동네 회원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3월 마지막 토요일에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 다. 그 내용은 1988년 당시 26세의 나이에 꽃동네 회원에 가입하여 매월 1만원 씩 납부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오시다가 사업에 성공하여 작년까지 빚도 다 갚고 늦었지만 꽃동네 밀린 회비를 보낸다면서 일금 447만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37년 3개월 동안 계산한 447개월 회비라고 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회원님이 어려운 환경 37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더욱이 사업에 성공했다고 밀린 회비를 보내주신 그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매월 20만원으로 올려서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잘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좋으신 하느님께서 꽃동네회원님 한 분 한 분의 선행을 보시고 천상의 상급으로 다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최귀동 할아버지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음성 예술인들이 시작한 음성품바축제가 제 26회를 맞이했습니다. “오월엔 품바야” 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음성 설성공원과 꽃동네에서 열립니다. 8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로, 10년 연속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음성품바축제에 많은 관심가지고 참석하시어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 저도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여전히 청년으로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기상하여 묵주기도하며 걸어서 성당에 가서 6시에 수도자, 봉사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감사미사를 드리고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미사에서 회원님들을 위해 그리고 꽃동네낙원에 잠들어 계신 꽃동네가족들과 회원님들 은인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마 이 일은 제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될 것이고, 꽃동네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꽃동네회원님!

꽃동네와 함께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본인과 자녀 자손대대로 중단 없이 계속 이어져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합시다. 회원 한분씩 더 가입시켜 주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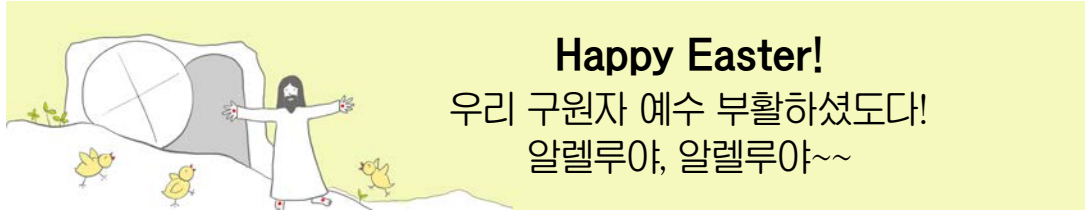
2025년 4월의 문턱에서  
꽃동네 가족들과 함께

오 응정신부님



※ 문의 043-879-0100  
※ 계좌(예수성심센터 기금)  
우체국 301341-05-000297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알려드립니다



1. 2025년 미주 꽃동네 분원 가정성화 피정 안내

미주지역 꽃동네 분원에서는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을 새롭게 쇄신하여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로워 지도록 매년 피정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8일(금)-8/24(일)**까지 미주 분원 피정을 위해 예수의꽃동네 형제회 박종윤 필립보 수사신부님과 박순자 마지아 수녀님께서 한국에서부터 오셔서 미주지역을 방문합니다. 각분원 피정일정을 안내합니다.

피정지도 : Fr. 박종윤 필립보(예수의꽃동네형제회, 재속회 담당사제) : Sr. 박순자 마지아(예수의꽃동네자매회, 재속회 지도수녀)		
날짜	지역	피정
8/8(금)-10(일)	테메쿨라	가정성화
8/12(화)	조지아	가정성화
8/15(금)-17(일)	뉴저지	가정성화
8/23(토)-24(일)	캐나다	가정성화

※ 피정에 참석하실 분들은 가까운 분원에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회 캘리포니아 꽃동네 성소주일 행사

2025년 성소주일을 맞이하여 캘리포니아 꽃동네(린우드, 테메쿨라)에서는 앞으로 자라나 교회의 희망이 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함께 하셔서 아이들에게 성소의 씨앗을 심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제 : “저 여기 있습니다.” <1사무 3,16>  
 일시 : 2025년 5월 18일 (일) 10 AM ~ 4 PM  
 장소 : 테메쿨라 꽃동네  
 대상 : 연령제한없음(선착순 50명 접수)  
 접수 및 문의 : 김주희(야고보)수녀 951)595-3298



3. 환영합니다.

미주지역 예수의꽃동네 재속3회 CA지부 5기 첫모임을 3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기간을 거쳐 8월 입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상 속에서 꽃동네영성을 꽃피워 나갈 수 있도록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4. 미주 예수의꽃동네 재속3회 모집

미주 지역 예수의꽃동네 재속 3회원들 LA린우드, 테메쿨라, 뉴저지, 조지아, 애리조나, 씨애틀에서 기도하며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인 활동 속에 꽃동네영성으로 무장하여 하느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분원활동 참조) 꽃동네 봉사자, 회원, 은인 및 꽃동네 관심이 있는 분들에 '미주지역 예수의꽃동네 재속3회'에 초대합니다. 거주지 가까운 꽃동네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 각 지부 문의전화 -

- CA 지부 : LA린우드꽃동네 : (310)-764-5331  
테메쿨라꽃동네 : (951)-395-9546
- NJ 지부 : 뉴저지꽃동네 : (973)676-2364
- GA 지부 : 조지아꽃동네 : (770)871-9177



꽃동네 후원 회원 한 분만 더 인권해 주세요.  
회비는 \$1 이상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회원 가입 안내 : 도네이션과 후원회비, 모바일뱅킹으로 가능

“Zelle”은 미국 내 주요은행 간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한 간편 결제 어플입니다. 온라인·모바일뱅킹이 가능한 분은 사용해주세요. 체크를 사용할 때 payable to에 **Kkottongnae Inc.** 라고 꼭 **Inc.** 까지 써주세요.

“Zell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어플 실행  
 Send 누르기 → 검색창에 “Phone Number” 입력(기관명 확인)  
 금액 입력 → 후원 완료(후원회원 가입 시에는 20면 참조)

미주 꽃동네 분원 젤(Zelle) 수령인 정보(휴대폰)			
분원명	전화번호	담당자	예금주
LA 린우드꽃동네	323-333-2541	Sr. 김수진 시몬	KKOTTONGNAE INC.
테메쿨라꽃동네	951-395-9546	Sr. 김재은 베드로	KKOTTONGNAE INC.
뉴저지꽃동네	201-956-0299	Sr. 순영희 야고보	YOUNG H SOON
조지아꽃동네	770-871-9177	Sr. 김영희 마지아	YOUNG HEE KIM

회원 관리상 FULL NAME이 꼭!! 필요하오니 FULL NAME으로보내주세요~



# LA Lynwood, CA

Tel. Fax: 310-764-5331  
3542 Norton Ave. Lynwood, CA 90262 USA  
E-mail: usla@kkot.or.kr



## ★ 사도직 이동

2월 예수의꽃동네자매회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12년동안 린우드 꽃동네에서 소임하셨던 강경남 (필립보)수녀님께서 테메큘라 꽃동네로 소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모든 노고와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강하나 (바르톨로메오) 수녀님이 새로운 가족담당으로 린우드 꽃동네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도직을 시작하는 수도자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 ★ 새해맞이 꽃동네수도자 모임

2025년 새로이 맞이하는 한해를 성모님의 도우심에 의탁드리고, 모시고 있는 할머니께 새배하고 공동체 수녀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김세을 신부님 초대 2월 성령 기도회



미국 캘리포니아에 방문중이셨던 김세을 신부님을 초청한 성령 기도회가 은혜로웠습니다.

50여명의 신자들이 참석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새롭게 거듭나고 주님의 은총 속에서 힘차게 걸어 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 꽃동네 재속3회, 흠리스를 위한 사랑의 나눔 실천

꽃동네 재속회원들이 추운 겨울, 거리에서 힘겹게 생활하는 흠리스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회원들은 생활용품과 방한용품을 마련해 기부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성소주일을 위한 수도복 제작 봉사

다가오는 성소주일을 맞아, 최 마리아 자매님이 신앙의 길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수도복을 정성껏 손수 만들어 원단을 재단하고 한 땀 한 땀 재봉하며 성소자들을 위해 봉사해 주셨습니다.

자매님은 "이 수도복을 입을 성소자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성소의 길



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전하셨습니다. 한 벌의 수도복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손길이 함께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담겨있습니다. 이번 성소주일에 작은 정성이 모여 이루는 마음의 울림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 ★ 일반인 평화의 모후 성당 예비신자들의 꽃동네 방문 봉사 체험 이모저모

3월 29일 토요일, 일반인 평화의 모후 성당 예비신자들이 특별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바로 꽃동네.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이곳 린우드 꽃동네에서, 봉사오신 분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봉사가 아닌 '영적 체험'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이들이 직접 몸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신앙이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체험한 의미 있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은 바로 흠리스 위한 도시락 봉사! 꽃동네 주변 제조작업부터 시작해, 흠리스들을 위한 도시락 식재료를 정성껏 준비하고, 따뜻한 밥을 담은 도시락을 하나하나 포장하며, 예비신자들은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를 담은 꽃동네의 영성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조심스러워하던 예비신자들의 얼굴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지요.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낀 순간, 그들의 마음도 점점 열려감을 느꼈습니다.

이 봉사 체험이 예비신자들에게 신앙의 길 위에 첫사랑처럼 오래 남는 기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Temecula, CA

Tel. : 951-302-3400  
 37885 Temecula Pkwy, Temecula, CA 92592 USA  
 ustmc@kkot.or.kr / www.tememculakkottongnae.org

## ★ HAPPY EASTER

희망속에 기뻐하고 환난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로마12.12> 사순시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창설자 오웅진(사도요한)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믿고 기다리고 믿고 구하고 믿고 감사하고 믿고 기뻐하고 믿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쁜 부활을 맞이하였고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어려움도 현존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다림으로 모두 해결되리라 희망합니다. 아멘.

## ★ 테메쿨라꽃동네의 산파 서복금 이레네 선종 1주기

1월4일은 故 서이레네자매님의 1주기 기일이었습니다. 테메쿨라꽃동네가 탄생하는 데에 산파역할을 하시고 지난 20여년간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하였던 자매님의 삶을 회상하며 유가족들과 함께 연도와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 ★ 사도직 이동

2월 예수꽃동네자매회의 인사이드가 있었습니다. 수녀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소임으로 오가는 모든 수녀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동수도사	계시던곳	가시는곳
Sr.강경남(필립보)	린우드&테메쿨라	테메쿨라
Sr.이민경(안드레아)	테메쿨라	가평꽃동네
Sr.김재은(베드로)	테메쿨라	뉴저지
Sr.김금순(시몬)	음성꽃동네	테메쿨라
Sr.최세리(마지아)	음성꽃동네	테메쿨라

## ★ 꽃동네영성 담은 전례피정: 월피정 활성화

2023년부터 시작된 꽃동네 월피정은 전례와 꽃동네영성을 접목하여 하루피정을 매달 돌췌주 화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3시까지의 시간동안 묵주기도, 꽃동네뉴스, 전례특강, 성사와 미사를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받으셨고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늘어남으로써 그분들이 지인을 모시고 와서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피정을 통해 예수의 꽃동네 재속회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 사순침묵피정



30여분이 참석한 사순피정에서는 이사야서를 주제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성서통독을 하였습니다. 일정상 하루나 이틀

만 참석한 분들도 계셨지만 피정내내 내리는 은총의 비는 각자에게 필요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데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리버사이드 김대건안드레아 성당 주임신부님이신 김대선(바오로)신부님의 동반으로 이루어진 미사와 고해성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뜻깊었습니다.

## ★ 예수의꽃동네재속3회 입회예정자 5기 교육

2025년에도 재속회에 입회할 수 있는 분들을 하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입회준비교육에는 9명이 함께하셨습니다. 입회결심을 하게 된 동기로는 꽃동네와 함께 남은 여생을 기도하며 봉사하고 싶다는 분이 계셨고, 꽃동네에 오면 친정 집처럼 좋아서, 하느님의 부르심이라 여겨서라는 이

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의꽃동네 재속3회 5기 입회준비교육을 하시는 모든 분이 남은 교육을 잘 마치고 구원의 여정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 시설관리 등 봉사자들의 손길

2025년 1월부터 테메쿨라꽃동네 시설정비와 외부작업으로 많은 봉사자들이 다녀갔습니다. 테메쿨라에 사시는 장미카엘형제님은 수시로 방문해주시면서 각종 수리(세탁기수리, 문고리수리 등)와 자동차정비 등 모든 문제의 해결사로서 도움을 주시고 플라밍 우바오로부부는 가스탱크 위치 재배치를 위해 관 연결, 우물 관정관련 수리 등 주요 기술이 요구되

는 정밀한 작업을 해 주셨습니다. 순교자성당의 인프란치스코형제님과 손가스발형제님은 환상의 콤비로 에어컨이 없는 숙소에 에어컨을 달아주시고 같은 성당의 플라밍 김프란치스코형제님도 시설관리에 필요한 크고작은 부분을 고쳐주시고 재정부해 주셔서 피정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숙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봉사해주신 모든 분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테메쿨라꽃동네 피정 및 행사안내			성소주일 : 선착순 접수, 연령제한 없음, 꽃동네 월피정(특강, 고해성사, 미사): 매달 돌췌주 화요일 10a.m.~3:30p.m.  성령기도회 : 매달 셋췌주 일요일 2:30~4p.m.  봉사자 언제나 환영합니다 (주방도우미, 피정동청소와 배당, 예초, 재능기부, 피정봉사 등)  <b>피정 및 봉사문의 SR김주희(야고보)</b> 951)595-3298 / ustmc@kkot.or.kr
5월	13(화) 10:00~15:30	꽃동네 월피정(주제 : 성모님의 사랑)	
	18(일) 10:00~16:00	성소주일(보물찾기, 부스체침, 미사 등)	
6월	10(화) 10:00~15:30	꽃동네 월피정(주제 : 예수성심의 사랑)	
	15(일) 14:30~16:00	성령기도회	
7월	8(화) 10:00~15:30	꽃동네 월피정(주제 : 성인열전)	
	20(일) 14:30~16:00	성령기도회	
8월	8(금)17:00~10(일)14:30	가정성화성령피정	
	17(일) 14:30~16:00	성령기도회	

가정성화 피정 안내 2025년 8/8(금)~10(일)	예수의꽃동네재속3회 연피정 안내 2025년 8/1(금)~3(일)
<b>■ 피정지도 :</b> <b>예수의꽃동네형제회·자매회</b> Fr.박종윤 필립보, Sr.박순자 마지아  <b>세계가톨릭성령쇄신봉사회(CHARIS)</b> 이사 : Br. 유정호 야고보 (예수의꽃동네형제회) 임원 : Sandra Caskey, Angelica Macias  <b>■ 대상 :</b> 성인(한국어진행), 청소년(7~12학년, 영어진행)	예수의꽃동네재속3회 연피정과 청원반 피정이 있습니다. 연피정후에는 그동안 입회를 위해 교육을 받아왔던 5기 입회식이 있습니다.  <b>■ 피정지도 :</b> 예수의꽃동네재속3회 지도신부 <b>Fr.박종윤 필립보</b> (예수의꽃동네형제회) 예수의꽃동네재속3회 지도수녀 <b>Sr.박순자 마지아</b> (예수의꽃동네자매회)



# New Jersey

Tel. Fax: 973-676-2364  
426 Minton Pl. Orange, NJ 07050 USA  
E-mail: usnj@kkot.or.kr



## ★ Arthur Bird 선종 5주기

뉴저지 꽃동네 법인 초대 이사장이셨던, Arthur Bird의 선종(2020.3.4) 5주기를 맞아 수도자들은 기도과 미사를 봉헌하며, 고마우신 발자취를 되새기고, 추모의 정을 나누었다. 사진을 통하여 생전의 인자하신 모습을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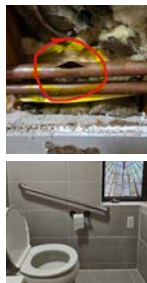
## ★ 2025년 법인 이사회

2025년 신년을 맞아 (현)법인 이사장이신 창설자 오웅진 신부님과 함께 새로이 법인 이사회를 실시하였으며(2/20), 금년 이사회를 통하여 뉴저지 꽃동네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 세대를 향한 뉴저지 꽃동네의 새로운 미션에 대한 열띤 토의시간을 함께 가지며, 미주 이민 사회의 변동과 함께할 새로운 준비를 모색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였다.



## ★ 꽃동네 질렛 피정집

꽃동네 질렛 피정집은 Arthur Bird의 유증으로서 뉴저지의 평화롭고 고요한 타운에 위치하여 피정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현재 본당의 평협회, 각 단체, 레지오, 청년 프로그램, 소그룹의 성서 연수를 위한 아담하고 조촐한 은총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 포코노 영성원 수도관 동파 복구

지난 겨울의 추위를 견디지 못한 영성원의 노후된 외벽을 통과하는 수도관이 동파되어, 응급으로 수도 배관을 보수하고 복구하는 작업을 강 베드로 님, 이 토

마스 님, 김 토비아 님께서 많은 노고와 재능 기부로써 봉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 방문

2025년을 맞으며 뉴욕에 소재한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뉴저지 꽃동네를 답사차 방문 하였다. (2025.1.17) 그동안 오렌지 분원은 한국 국민으로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연고자가 없으신 서류 미비자들을 여러명 보호해왔으며, 그들 중에 몇분은 선종하여 천국에 계시다.

## ★ 희년 축성생활의 날 뉴욕 대교구 행사 참석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2025 희망의 순례 희년' 뉴욕대교구의 행사로 '축성생활과 봉헌자들의 희년' 행사로 조셉 토빈 추기경님께서 주최하시는 서원갱신 미사와 모임에 참석하는 은총의 시간을 가졌다.



## ★ 수도자 소임 발표 및 소임이동

2025년 2월 꽃동네 수도회의 소임발표로 지난 4년간 함께하였던 신유진 도마 수녀님이 본원으로 귀원하고(2/27), 새로이 김재은 베드로 수녀님이 부임하여(3/18) 뉴저지 꽃동네와 함께하는 수도살을 시작하였다.



## ★ 퀸즈 성당 연도 및 회원 감사 인사

뉴저지 꽃동네를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최선 후원하고 있는 퀸즈 본당 공동체에서 수도자 가족을 위한 위령 미사와 연도를 마련하고, 아이티 성금을 기탁하였다.



## ★ NY브롱스 & Queens 급식 봉사, NJ 팔팍 & 오렌지 급식 봉사

오렌지에서 꽃동네가 급식 봉사를 시작한지 올해로 15년을 맞으며, 재속회의 성장과 함께 이제 뉴욕의 퀸즈 2곳, 브롱스의 공원 근처에서, 뉴저지의 한인타운 팔리세이드파크와 오렌지 등 총 4곳에서 매월, 매주 급식 봉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스페니쉬와 영어로 된 과달루페 성모님 이미지 기도문이 담긴 상분도 제작하여 나누고 있다.



## ★ 꽃동네 영성 줌 특강

꽃동네 영성을 더욱 잘 배워익히고, 현지의 삶으로 녹아내는 영성의 실재를 접하고자하는 꽃동네 재속회원들의 커다란 울림으로, 창설자 신부님과 일상을 함께하시며, 재속회의 전담사제로 봉사하시는 박종윤 필립보 신부님과 참 어렵고 가난한 사회구조 안에서 베네수엘라 꽃동네를 개척하여 일구시는 안주형



시몬 신부님을 초대하여 줌 특강을 경청하는 은총과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 질렛 피정집 감실대 및 성모상 좌대 봉헌

귀하고 값진 보석을 흠없고 견고한 아름다운 함에 담아서 사랑과 정성으로 전달하듯, 영혼의 빛과 혼을 쏟아서 거룩한 성체성사를 모시기위해 제작하신, 이 미카엘 님의 새로운 전례용품 감실대와 성모님 좌대를 축복하는 미사를 재속회원들과 질렛 기도실에서 봉헌하였습니다.(2/8) 아름답고 은혜로운 감실대는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교회의 성스러움을 절로 느끼게 합니다.



## ★ 가난하고 소외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St. Michael Cafe 방문

뉴저지 Paterson에 소재한 St. Michael's Cafe는 새롭게 창설된 '혁신 프란치스코 형제회'에서 수사님들이 저

소득층 주민들이 모여서 무료로 커피와 스낵을 즐기며, 담소할 수 있도록 일반 주택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가톨릭신자가 대부분 아니지만, 영적이고 종교적인 실내의 구성과 장식으로 방문자들에게 평화와 작은 기쁨을 선사하며, 안전함을 느끼게하였다.

## ★ 부활 소품 만들기 바느질 봉사

사순시기의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위해, 준비하는 부활 소품 손바느질 작업 봉사에 박 루피나 선생님과 데마레스트 본당 레지오와 봉사자들의 참여로 부활의 천상적 기쁨을 앞당겨 나누는 사랑의 자리가 되었다.



## ★ 오렌지 가스 누출 배관 보수

오렌지 꽃동네의 보일러실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이 감지되어 배관을 점검하고 안전하게 보수하는 기회를 갖게되어 봉사에 임해주신 봉사자님과 하느님의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 ★ 미주 예수의꽃동네 재속3회 (동북부)

오직 사랑만으로 저희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께서는 죄중에 허덕이는 비참한 저희를 구하시고자 사람이 되어 오시어, 고통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시고, 그 신비로써 저희들이 하느님께 돌아가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꽃동네 재속3회원들은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예수 성심의 넘쳐흐르는 특은으로 꽃동네를 창설한 오웅진 신부님의 '창설자의 영성'을 통해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릅니다. '예수의꽃동네'의 수도영성 안에 재속회원의 삶을 살아가고자하시는 분들은 회보 뒷면에 게재된 거주지에서 가까운 분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J: 201-230-5643)





# Georgia

TEL: 770-638-1385  
5732 Lawrencevill Hwy. Tucker, GA 30084 USA  
E-mail: gakkot@gmail.com / www.gakkot.us



## 조지아 꽃동네 회원님께, 알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5년의 부활절을 맞아, 조지아 꽃동네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활동들을 돌아보며, 함께 나누고 사랑을 실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 조지아 꽃동네의 겨울

올 겨울도 많은 어려운 시기였지만, 꽃동네 회원 여러분의 힘과 사랑으로 모두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서로의 사랑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 2025 설날웃놀이

설날을 맞아 열린 웃놀이 행사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웃놀이, 모두가 하나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 매주 월, 목요일 난민촌 사랑의 나눔

조지아 꽃동네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난민촌에서 사랑의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빵, 고기, 야채, 과일, 우유 등 다양한 먹거리를 나누며 함께 하는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수녀원 뒤뜰 포도나무 프로젝트

수녀원 뒤뜰에 세운 포도나무 프로젝트는 많은 형제님들의 손길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도움을 주신 형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포도나무가 자라며, 그 결실을 기다리는 시간이 설레입니다.



### ★ 야드세일 난타공연

지난 야드세일에서는 난타공연이 흥을 더해 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공연을 준비해주시고 함께해주신 모든 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더욱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 ★ 조지아 꽃동네 봄 야드세일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야드세일이 있었습니다. 물건 세팅부터 정리, 판매, 마무리까지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루어진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 ★ 조지아 재속회원 모집

조지아 꽃동네에서는 **재속 3회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느님께 봉헌된 삶을 살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적극적인 활동과 기도로 함께 하실 분들은 조지아 꽃동네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770-678-1385, 770-871-9177, 770-403-1933)

다. 또한,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시는 자매님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수고 덕분에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 ★ 매주 수요일 2시미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활동이 가능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가 꽃동네를 더욱 풍성하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지아 꽃동네 드림



# Canada

TEL: 647-808-3989  
6096 Second Line, Orton(Erin), ON., L0N 1N0  
E-mail: kkotcanada@gmail.com

## ▶ 토론토교구 예수성심성당 청소년 부 학생들 노숙인들 위한 후원금 전달

학생들은 이를 위해 대림절 기간 내내 물건을 만들어 팔고 동전을 모아주었습니다. 학생들이 모금한 금액은 \$3,030.20로 노숙인들의 겨울 나기에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후원금은 담요와 양말, 속옷, 양말, Emergency Blanket, 솜바지 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겨울 담요를 받은 한 노숙인은 “난 겨울 내내 추웠는데 이제 더 이상 춥지 않겠다”고 울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다른 노숙인들은 사용했던 물건이 아니라 새물건을 받는 것에 놀라웠는데 이 모습을 보니 산타할아버지의 선물을 놀라워하면 받았던 어릴 적 기억이 났습니다. 학생들을 통해 성탄의 추억을 그들에게 일깨워준 것 같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해밀턴교구 내 Ex Corde Foundation에서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Ex Corde Foundation은 해밀턴교구 자산 중 2,000,000달러를 투자해 생긴 수익금 884,000달러를 재단위원들이 심의해 지원해 주는데 이번이 25번째이고 42건의 요청서 중에 저희 꽃동네가 선정된 것입니다. 작년에도 25,000달러를 후원해 주어 화장실 공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하였는데 올해 또 15,000달러의 후원금을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 공동체를 신뢰해준 해밀턴 교구와 안배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 두 분의 캐나다인 신부님과 예수성심성당 청소년부 학생들의 사순피정

2월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피정을 하신 Paul 신

부님은 지난 10월 주교님의 축복식을 통해 꽃동네 피정의 집이 있는 걸 아시고 조용한 곳이 필요하며 연락을 주셨고 8일간의 피정을 잘 마치셨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셨고 한국음식도 잘 드셨고 눈 치우는 일도 잘 도와주셨습니다. 눈이 가장 많았던 주간에 머물러 주셔서 저희도 외부 미사 갈 걱정없이 집에서 편하게 미사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머문 Pawel 신부님은 2년 전 첫 방문 후 해년마다 꽃동네 가고 싶다고 노래를 하셨는데 마침내 소원성취했다고 기뻐하십니다. 꽃동네 오면 웃게 된다며 다음을 기약하고 가시는 신부님이 거룩한 사제되시길 기도드립니다.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예수성심성당 청소년부 학생들의 사순피정이 있었습니다. 피정에 열심히 참석한 학생들도 기뻐했지만 더 열심히 피정을 준비한 선생님들의 모습이 더 거룩해 보였습니다. 이처럼 귀한 학생과 선생님들을 위해 저희 재속회원들은 열심한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했고 피정에 참석한 이들은 기쁘게 먹어주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성당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올해는 참으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Snow-belt에 위치한 꽃동네는 다른 지역보다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은데 올해는 제가 지낸 3년의 시간 중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작년 이맘 때 날이 따뜻하고 눈이 없어 정화조 공사와 우물 보수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의 큰 눈들을 맞으면서 작년 날씨가 하느님이 공사를 위해 허락해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지붕 위에 눈이 70cm 이상 쌓이면 무너진다고 말해 본관과 경당지붕 눈까지 치우느라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이후로도

계속 머리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치우는 기계를 가지고 자기 집보다 저희 집 눈을 먼저 치워준 착한 이웃 Jordy가 있어서 좋은 기억도 남을 것 같습니다. 겨울 동안 제 소원은 눈을 치우고 기도길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올해도 역시 눈한테 졌습니다. 트랙터에 연결하는 snow blower가 생기면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련만... 그 때가 언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 재속회원들을 위한 1박 2일 피정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꽃동네 영성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꽃동네재속회원들의 1박 2일 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피정엔 사순절에 맞게 십자가의 길을 주제로 피정을 했습니다. 이 피정을 통해 십자가를 지고가는 이들과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가난한 이들의 고통과 죽음까지 대신하는 꽃동네재속회원으로 함께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 ▶ 3/17~18일까지 전임 ICCRS 회장이었던 Michelle Moran 의 강의를 참석

2009년 꽃동네에서 진행된 세계성령대회 당시 세계 회장으로 행사에 참여했던 Michelle Moran 이 토론토에서 리더쉽과 봉사에 관한 강의를 해 재속회원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강의 중간에는 꽃동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시며 안부인사를 해주셨고 저희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가정이나 소공동체에서도 리더쉽은 중요한 주제이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느님을 우선으로 하는 신앙을 강조해 주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 노숙인 봉사활동에 학생들 참여도 UP

노숙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수 있는 어린 나이임에도 가난한 이들을 돕고자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족이 함께 봉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머니를 도와 친구와 함께 봉사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능숙한 영어 실력은 노숙인들의 요구를 더 잘 채워줄 수 있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이 선한 마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 ▶ 성탄맞아 재속회원들과 노숙인잔치

한맘성당 신자분들과 꽃동네재속회원들이 함께 노숙인들을 위한 잔치음식을 준비해 나눔을 가졌습니다. 특히 재속회원들은 거리의 노숙인들을 찾아다니며 잔치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식재료를 기증해주시고 음식을 함께 조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부활잔치 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 ▶ 수도자 소임이동

5개월간 음식의 경이로움을 알려주신 이향배 필립보 수녀님이 2월 4일자로 꽃동네 본원으로 귀원하셨고 꽃동네대학교에서 안식년을 맞이하신 전희정 시몬 수녀님이 3월 13일자로 1년간 캐나다꽃동네에서 소임하시게 되셨습니다.두 분 수녀님께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기도드리고 1개월동안 수고해준 장명희 약고보수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동안(12월 31일 현재) 총 495명 참석(누적인원 815명)이 피정에 참석하셨고, 1,620여명의 노숙인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부활축하드립니다. Happy Easter !

## 후원회원이 되어주십시오

- 1) TD Bank:Kkottonnae Catholic Church of Canada Account No. 1976 5227721, Branch Transit No. 004
- 2) E-transfer: kkotcanada@gmail.com



# 한국 소식

예수의꽃동네형제회

## 박종혁(베드로), 에즈아니 치데베레(필립보) 2명의 수사 사제서품

2025년 1월 7일 청주 체육관에서는 청주 교구장 김종강 시몬 주교의 주례로 사제, 부제 서품식이 거행되어 3명의 사제(교구 1명, 예수의꽃동네형제회 2명)와 4명의 부제가 탄생하였습니다.

이날 서품식 미사를 통해 사제로 축성된 예수의꽃동네 형제회 박종혁(베드로)신부와 에즈아니 치데베레(필립보) 신부는 1월 8일 오전 10시 예수성심대성당에서 꽃동네 창설자 오웅진 신부를 비롯, 손님 사제들과 친지들, 꽃동네 가족들과 수도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첫 미사를 집전하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갈 것을 다짐한 빛나는 청춘들이 양들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바치는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모쪼 동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수의꽃동네형제회 · 자매회 종신서원식

예수의꽃동네형제회·자매회 2025년 종신서원식이 주님 봉헌축일인 2월2일 청주 교구장이신 김종강(시몬) 주교님의 주례로 음성꽃동네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종신서원을 허락받은 수도자는 안성훈 도마 수사와 신연심 도마 수녀입니다.

안성훈 도마 수사는 대전가톨릭대학교에서 재학중으로 내년도에 부제 서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연심 도마 수녀는 전북대 의과대학 졸업 후 단국대병원에서 수련의를 거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입니다.

이날 두 수도자는 종신서원을 통해 하느님과 교회 그리고 꽃동네 공동체 앞에서 정결, 가난, 순명의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약속했습니다. 수도가정에 완전히 결합된 두 수사, 수녀님께서 앞으로도 거룩한 수도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예수의꽃동네형제회 안성훈 도마 수사



예수의꽃동네자매회 신연심 도마 수녀

꽃동네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이 땅을 장엄한 정원으로 가꾸신 하느님의 지극한 창조의 숨씨를 자연스레 떠올리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이 거룩한 정원 위에 사랑하시는 도마 수녀님과 도마 수사님을 심으셨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새롭게 피어나는 향기로운 꽃이 되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향기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교황대사님 축사 중에서 -

# 해외소식

## 우간다 꽃동네 황경순 수녀, 대통령 표창.이태석상 동시 수상

“에이즈 환아들과 17년. 작은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아프리카 우간다꽃동네에서 17년째 소임을 해 온 황경순 마태오 수녀(73)가 12월 5일 경기 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본부에서 열린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날 황경순 수녀는 에이즈에 걸린 채 태어났거나 에이즈로 인해 부모를 잃은 빈곤아동들을 보살핀 공로를 인정받아 ‘이태석상’도 동시 수상했습니다. ‘이태석상’은 남수단에서 의료 봉사하고 소외계층 돌봄에 앞장섰던 고 이태석 신부의 봉사 정신을 기리기 위한 상입니다.

현재 우간다꽃동네는 움바라라 천사의집, 키루후라 사랑의집 및 천사의집 등 3곳의 시설에서 아동, 노숙인, 장애인 등 300여 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손을 거친 아이들만 150명 이상입니다. 황 수녀는 “이제는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뿌듯하다”고 말합니다. 약 800여명에게 학비를 내주고 50여 채의 벽돌집을 지어줬다는 황 수녀는 “이번 수상은 소임을 함께 했던 신부님, 수사님, 수녀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영혼들을 찾아간다는 꽃동네의 영성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앞으로의 여생도 우간다에서 보내고 싶다는 황 수녀의 꿈은 ‘꽃동네사랑의연수원’처럼 현지인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 예수의꽃동네형제회 이동규(야고보)수사 파라과이 까쿠페 교구에서 부제 서품

예수의꽃동네형제회 이동규(야고보)수사가 파라과이 까쿠페 교구에서 2월에 부제서품을 받았습니다. 이동규 수사는 파라과이꽃동네에서 활동하며 수도 아순시온의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첫 사제 아이티 파견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의꽃동네 형제회에서 외국인으로서 처음 사제서품을 받은 치데베레 필립보 신부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적부터 꾸준히 성소모임에 나가던 학생이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카메룬에서 철학 공부를 하며, 진리에 대한 갈망을 더욱 느꼈습니다. 주변 본당에서 봉사 활동을 하게 되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제가 되고 싶은 열망을 뜨겁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속의 열망이 무르익을 무렵, 운명처럼 꽃동네와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이들에게 선물로 내어 놓기 위한 결정과 함께 저는 2018년 우간다 꽃동네에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사제가 되고 첫 소임으로 아이티 소임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난한 이들에게 제 삶을 온전히 내어놓기 위하여 아이티로 갑니다. 그곳에서 꽃동네 영성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예수의꽃동네형제회 치데베레(필립보)신부



## 미국 꽃동네 회원님께 알려드립니다.

- 회원번호는 회원증에 적혀 있습니다.
- 회비를 보내주실 때는 Check에 회원번호를 꼭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비를 내실 때마다 회원증을 함께 보내주시면 수납도장을 찍어서 다시 보내드립니다.
- I.R.S. 세금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꽃동네 회원이 되시려면

1. 누구나 다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가족이나 친지, 이웃 등)
2. 회비는 한 달에 \$1 이상이면 됩니다.  
(6개월이나 1년치 회비를 한번에 내셔도 됩니다.)
3. 신규로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와 첫 달 회비를 보내주세요.
  - **우편:** 회원가입신청서 + 첫 달 회비  
(check : Payable to Kkottongnae Inc.)
  - **비 우편:** 문자메시지 혹은 이메일로 회원가입 신청서 발송 후 **Zelle**을 이용하여 회비 송금
  - **전화** 이용 또는 꽃동네 **방문** 후 가입도 가능
4. 회원 한 분씩만 더 인권해 주세요.

## 미국 꽃동네에 입소하시려면

-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분을 우선으로 합니다.
  - 연고자가 없는 분, 오갈 데 없는 분, 어려운 분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을 먼저 모십니다.
- \*회원님 주위에 이런 분이 계시면 연락해주세요.

- **LA 꽃동네: LA Kkottongnae**  
3542 Norton Ave, Lynwood, CA 90262 USA  
(Tel) 310-764-5331  
E-mail : usla@kkot.or.kr
- **테메쿨라 꽃동네: Temecula Kkottongnae**  
37885 Temecula Pkwy, Temecula, CA 92592 USA  
(Tel) 951-302-3400  
E-mail : ustmc@kkot.or.kr  
www.tememculakkottongnae.org
- **NJ 꽃동네: NJ Kkottongnae**  
426 Minton Pl, Orange, NJ 07050 USA  
(Tel) 973-676-2364  
E-mail: usnj@kkot.or.kr  
<https://njkkottongnae.org/>
- **조지아 꽃동네: GA Kkottongnae**  
5732 Lawrenceville Hwy, Tucker, GA 30084 USA  
(Tel) 770-638-1385  
E-mail: gakkot@gmail.com
- **캐나다 꽃동네: Canada Kkottongnae**  
6096 Second Line, Orton, ON, Canada (LON 1N0)  
(Tel) 647-808-3989  
E-mail : kkotcanada@gmail.com
- **아이티 꽃동네: Haiti Kkottongnae**  
Rte Nationale #3, Beudet-Meyer,  
Croix des Bouquets, Haiti  
(Tel) 509-4398-2207
- **꽃동네 본원:**  
충북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47-93 (우27732)  
(Tel) 043-879-0151(~9) (Fax) 043-877-4575
- **꽃동네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kot.or.kr>

꽃동네회원 가입신청서				회원번호 No.
성명 Name	한글 Korean	영문 English		세례명 Baptismal Name
주소 Address	주택 Home			
전화번호 Phone	주택 Home	휴대폰 Cell		
소속성당 Parish	추천인성명 Recommender			
비고 Other	Email			